

식이성 다한증에서 Bzotropine의 효과

— 2예 보고 —

이석열* · 전철우* · 박형주* · 이철세* · 이길노*

The Effect of Bzotropine in Gustatory Hyperhidrosis

— Two case report —

Seock Yeol Lee, M.D.*, Cheol Woo Jeon M.D.*, Hyung Joo Park, M.D.*
Cheol Sae Lee, M.D.*, Kihl Rho Lee, M.D.*

Two patients with gustatory hyperhidrosis complaining of discomfort during usual activities were relieved of sweating by using anticholinergic bztropine. Herein, we report two cases of gustatory hyperhidrosis treated with bztropine.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2003;36:300-301)

Key words: 1. Hyperhidrosis

증례

증례 2

증례 1

48세 남자 환자로 약 20년 전부터 시작된 식이성 다한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과거력과 가족력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 환자의 직업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경우에 발한이 심하여서 대인관계상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호소하였다. 일반 혈액 검사, 생화학 검사 그리고 갑상선 기능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다. Bzotropine 1 mg을 하루에 두 번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일주일 후 외래 추적 검사에서 상당량의 발한감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지속적인 처방을 하였고 현재 1년의 추적 관찰을 하는 중에 있으며 별다른 합병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약효에 만족하고 있다.

31세 여자 환자로 약 10년 전부터 시작된 식이성 다한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과거력과 가족력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 환자의 직업은 교사였으며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경우에 발한이 심하여 화장이 지워지는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일반혈액 검사, 생화학 검사 그리고 갑상선 기능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다. Bzotropine 1 mg을 하루에 두 번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일주일 후 외래 추적 검사에서 상당량의 발한감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지속적인 처방을 하였고 현재 9개월의 추적 관찰을 하는 중에 있으며 별다른 합병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약효에 만족하고 있다.

고찰

식이성 다한증은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섭취 시 안면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흉부외과학교실

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Soonchunhyang University Chunan Hospital

논문접수일 : 2002년 8월 13일, 심사통과일 : 2002년 12월 7일

책임저자 : 이석열 (330-721) 충남 천안시 봉명동 23,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흉부외과

(Tel) 041-570-2193, (Fax) 041-575-9674, E-mail: csdoctor@sch.ac.kr

본 논문의 저작권 및 전자매체의 지적소유권은 대한흉부외과학회에 있다.

에 국소적인 과발한이 나타나는 증세이다. 환자들은 안면부의 발한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의 어려움, 대인관계 기피 등의 어려움과 함께 여자 환자의 경우는 화장을 할 수 없다는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 이러한 식이성 다한증은 생리현상 또는 비생리적 현상으로 나눌 수 있다. 생리적인 식이성 다한증은 주로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며 음식섭취 후에 안면부에 소량의 대칭성 발한이 나타난다. 이에 반하여 비생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식이성 다한증은 특이체질성, Frey증후군과 당뇨 등이 원인이 된다. 특이체질성은 특정 음식을 섭취 시 발한이 안면부와 경부에 심하게 나타나며 대칭성이고 때로는 안면홍조를 동반한다. 이러한 특이체질성에 대한 병리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정상 생리현상의 변형형태로 간주하고 있다¹⁾. Frey증후군은 이하선이나 타액선의 손상이나 수술 후에 땀샘을 지배하는 부교감신경섬유들의 재생이 잘못되어 나타난다²⁾. 이러한 형태에서는 식이성 다한증이 대칭성이 아닌 국소성으로 나타나며 과발한과 안면홍조가 이개측두신경(auriculotemporal nerve)이 지배하는 안면부에 나타날 수 있다. 당뇨병에 의한 식이성 다한증은 Watkins³⁾에 의해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의 증상으로 보고되었으며 확실한 발병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에 의해 초래되는 무한증의 생리적 반응으로 식이성 다한증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식이성 다한증은 교감신경절제술 후 73%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한다⁴⁾. 전통적인 치료방법으로는 scopolamine 국소제나 aluminum chloride 국소제, 심한 경우에는 고실신경파괴술 등이 있으나 이러한 치료법들의 결과는 대단히 실망적이다⁵⁾. 항콜리너직 약제인 벤즈트로핀은 에크린 한선의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차단하여 발한을 감소시킨다⁶⁾. 본 증례들의 경우 이러한 벤즈트로핀의 항콜리너직 발한 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로

운 것은 본 증례 환자들이 약을 실수로 복용하지 않은 경우는 원래 약복용 이전 상태처럼 많은 양의 발한을 호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benzotropine은 완치약물이 아니라 일종의 증상 경감약제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그 외의 치료법으로는 glycopyrrolate 도포제가 Frey증후군 환자에서 사용되었고⁷⁾ 근래에는 botulinum toxin을 이용한 치료도 보고되고 있다⁹⁾. 상기 증례들의 경우는 객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상기 결과를 가지고 전적으로 식이성 다한증에 benzotropine이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식이성 다한증에 특별한 치료 방침이 없는 실정에서 benzotropine으로 효과를 보았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Sheehy TW. Diabetic gustatory sweating. Am J Gastroenterol 1991;86:1514-7.
2. Langdon JD. Complication of parotid gland surgery. J Maxillofac Surg 1984;12:225-9.
3. Watkins PJ. Facial sweating after food in diabetics. Br Med J 1973;3:291.
4. Kurchin A, Adar R, Zweig A, Morez M. Gustatory phenomena after upper dorsal sympathectomy. Arch Neurol 1997;34:619-23.
5. Naumann M, Zellner M, Toyka KV, Reiners K. Treatment of gustatory sweating with botulinum toxin. Ann Neurol 1997;42:973-5.
6. Garber A, Gregory RJ. Benzotropine in the treatment of venlafaxine-induced sweating. J Clin Psychiatry 1997;58:176-7.
7. Hays LL, Novack AJ, Worsham JC. The Frey syndrome; a simple, effective treatment. Otolaryngol Head Neck Surg 1982;90:419-25.

=국문 초록=

평소에 식이성 다한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던 두 환자들에서 항콜리너직 약제인 benzotropine을 사용하여 발한감소 효과를 보았다. 저자들은 이를 치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심 단어 : 1. 다한증